

광주비엔날레 국제타운 예타 막바지

〈예타담당성조사〉

중외공원·용봉지구 일대 비엔날레 문화공간 조성

민속박물관~국립박물관 연결 다리 신설 등 포함

사업 여부 이달중 결정...부정적 의견엔 축소 불가피

광주시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7년 동안 공을 들였던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사업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 중외공원과 용봉지구 일대에 비엔날레를 상징하는 국제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와 관련한 최종 회의가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광주시, 문체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시는 2009년부터 사업 추진에 들어가 2014년 7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하고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는데 공을 들였다.

예타의 시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해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중외공원 82만2000여㎡와 용봉지구 10만5000여㎡에 비엔날레자료관, 파빌리온(진열관) 형태의 국가관, 음악당, 공방촌 등을 만들어 광주비엔날레를 상징하는 국제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서광주 나들목으로 단절된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을 연결하는 다리 신설 등도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시는 중외공원 주변에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등

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 이 일대를 광주시 동구에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국비 384억5000만원, 시비 470억5000만원, 민간자본 320억원 등 사업비 1175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국비 등 사업비 축소나 계획 변경 등이 불가피하다.

시는 예타결과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공노 가입으로 정부와 시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광주시의 2019세계수영대회 지원부조 조직승인안 처리를 미루는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구와 강진을 오가는 '대구-강진시외버스 오감통통'이 지난 7일 첫 운행에 들어갔다. 강진원(가운데) 강진군수가 시외버스 오감통통 첫 이용객인 대구시민 40여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대구 동서화합 광역시외버스 달린다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행

영랑생가·놀토시장 등 경유

대구·경북 관광객 유치 기대

강진군과 대구광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화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오가는 광역시외버스를 운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재단법인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지역 관광활성화와 동서화합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대구와 강진을 오가는 '대구~강진시외버스 오감통통' 관광상품을 지난 7일 처음 선보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는 전국 최초라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첫 시외버스를 통

해 대구지역 관광객 40명이 강진을 방문,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강진군은 지난해 12월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에 따른 대구·경북 관광객의 남해권 접근성 증가 효과를 겨냥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

'남도답사 1번지'에서 '감성여행 1번지'로 떠오른 강진군은 '2017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위한 사전준비와 지난해 12월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으로 심리적 거리가 해소됨에 따라 대구·경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선점화에 나서고 있다.

오감통통 버스는 대구시 성서출발루를 출발해 강진 영랑생가,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가우도 트레킹, 다산초당을 경유하는 문화역사탐방과 감성여행 코스를 중심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행

한다. 강진군은 포화상태인 광주·전남 관광객보다 국내관광 수요가 많은 대구·경북권 관광객 선점 유치로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대구·경북권 사람들이 감성여행 1번지 강진에 관심을 갖게 돼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강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감통통 버스 관련 문의는 삼성여행사 (053-431-3000~3011)와 강진군문화관광재단 (061-434-7999)으로 하면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북한 36년만의 노동당대회...한반도 정세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초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도발에 나섰고, 이에 맞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 채택과 대북 독자제재 등으로 전방위적 북한 '육

죄기'에 나서면서 한반도는 여전히 '시계 제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 가운데 당 대회 이후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北 '핵·경제' 병진노선

평화공세 통한 전술적 변화 가능성도

△北 병진노선 재확인, 전략적 도발 우려... '평화공세' 전술적 변화 가능성= 제7차 당 대회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북한의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은 당 대회 사흘째인 8일 현재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당 대회 기간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 필요에 따라 언제든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김정은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핵전과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는 외면한 채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서 전 세계적 핵군축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다는 의미가 풀이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다시 한번 분명히 거부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전면적 이행과 대북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조일 전망이다.

북한이 추가 전략적 도발에 나서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어디로 튈지는 북한이 제재로 얼마나 고통을 느



北역대 당대회 경제개발 계획

- 제3차 신경제개발 5개년계획
- 제4차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 제6차 사회주의건설 10대 전망 목표
- 제7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 기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 목표: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 인민경제의 지립성·주체성 강화, '식량'의 지급지속 실현,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 '수산물생산 목표 달성', '경공업 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
- 주요 내용
 -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주도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경제 선형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상태에 올려놓으며 경공업생산을 늘려 인민생활 향상
 - 전략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
 - 전략문제 해결에 국가역량을 집중
 - 대외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 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무역구조 개선
 - 합업·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직해 생산 기술 수준
 - 경제개발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

끼느냐, 또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제재에 버틸만하다고 판단하면 비핵화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사실

상 핵보유국 지위' 구축을 위한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우면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 5차 핵실험 등으로 추가 판 흔들기에 나서든지 돌연 평화공세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전선의 균열 또는 이완을 꾀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제1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실제 평화공세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이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대화 공세"를 통한 전술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장영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기존의 원칙적 이야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북한이 정세에 따라 '누울 자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화 관련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까지 나서 중국이 안보리 결의의 '면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거듭 약속했지만, 중국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다시 전면에서 부상하면서 한미 대 중·러간 신경전이 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 별세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이 8일 오전 11시 7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방 상임고문은 고 발원일 전 조선일보 회장의 동생으로 1970년 조선일보 신임 사장으로 임명됐다. 1993년 조카 방상훈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준 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일보 상임고문을 지냈다.

고인은 1928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아버지 방재윤과 어머니 이상춘의 둘째 아

들로 태어났다. 방 상임고문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서울 경신고등학교를 거쳐 연희전문학교 전문부 상과에 입학, 1949년 졸업했다. 이어 1952년 조선일보 공무국 견습생으로 입사해 8년간 사회부와 경제부 기자로 일한 뒤 1960년 조선일보 계열사인 아카데미극장 대표를 맡았다. 이후 조선일보 대표이사 회장, 연세재단이사장, 연세대 명예동문회장, 대한골프협회 명예회장 등을 맡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선영 여사와 아들 성훈(스프츠조선 대표이사 발행인 겸 조선일보 이사), 딸 혜성·윤미·혜신과 사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정연욱 경남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있다. 본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장례식장 1호에 마련됐다. 장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선영. 전화 (02) 2227-7550.

/박기용기자 pboxer@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 ① 원서접수 : 2016. 5. 30(월) ~ 6. 8(수)
- ② 전형일 : 2016. 6. 10(금)
- ③ 합격자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지로 36 입학문의 ▶ 0621 605-1115, 1024, 1021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전국 여객통행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에서는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여객통행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교통 및 물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전국 여객기중통행량 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조사원이 귀속에 방문시 가구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범위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조사대상
- 조사범위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5세 이상 가구원
- 조사범위 내 버스터미널, 항공, 철도, 항만을 이용하는 이용자

■ 주요 조사내용
- 가구 일반현황 및 개인통행 특성, 장거리 통행유무 및 통행특성 (예: 통행목적, 출발지, 출발시간, 도착지, 탑승인원, 이용수단 등)

■ 조사기간
- 본 조사 : 2016년 5월 1일 ~ 5월 31일
- 보완 조사 : 2016년 10월 중

■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이 직접 가구 혹은 교통시설물에 방문하여 설문지 배포 및 회수, 각 항목에 대하여 전화조사 실시
※ 방문하는 전문조사원의 명함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메트릭스
메트릭스 광주사무소 080-833-0701~2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수행기관 광주광역시 OGNANGJU 전라남도 JeollaNamdo Metrix (주)메트릭스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무료 대 특강(롯데백화점)

99%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 제시!!

장 소	롯데백화점 11층 문화센터
일 시	2016. 5. 11(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 1교시 하반기 경기 변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 흐름 공개
- 2교시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돈되는 부동산 매물 및 정확한 수익 분석
- 이전 농지가 돈이 된다! / 돈이 되는 농지 구별법
- 3교시 재테크의 달인 김영표 대표의 성공 투자 해법 공개
- 투자 실패 사례 분석 및 성공 사례 완벽 분석
- 수익형 부동산 유형별 / 물건별 상담분석 및 일반인 투자 노하우
- 4교시 물으면 개발사 토지 투자 로 영원이 월세 받는 비법 공개
- 미래 가치 확실한 개발사 임대료 파먹는 노하우 완전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방송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